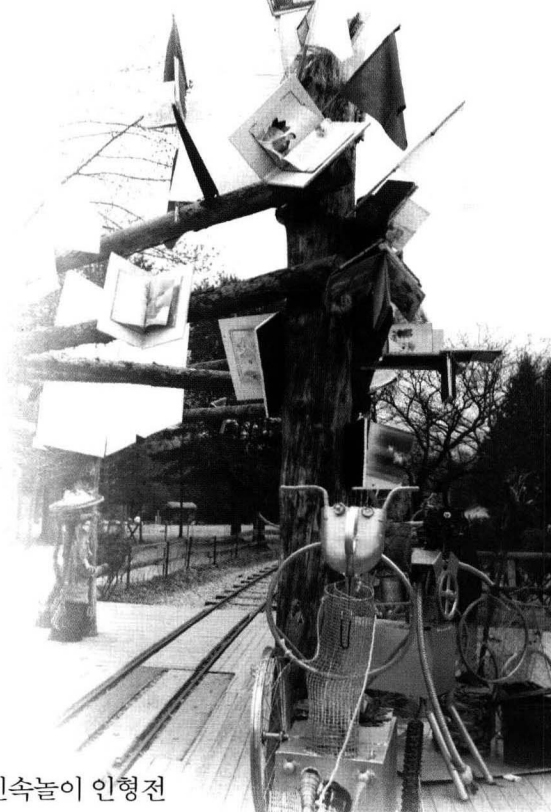


# 남이섬 · 파주, 5월 '책 잔치' 한마당

'가정의 달'인 5월은 책과 관련된 행사도 풍성하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 열린 '남이섬 세계책나라축제'와 어린이날부터 열흘간 열리는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가 그중 대표적이다. 현장의 프로그램과 행사 내용을 살펴본다.



##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

4월 22일~6월 30일 남이섬 일대 및 특설전시장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에서는 전세계 66개 국의 어린이책과 그림책 원화를 만날 수 있다. 지난해는 39개 국이 참여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행사 규모와 내용 면에서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 어른과 어린이를 하나로

이벤트홀과 안데르센홀, 노래 박물관 등 곳곳에 열려있는 다양한 전시, 체험 현장학습이 눈길을 끈다. 세계 각국의 어린이책을 엿볼 수 있는 상설 전시와 더불어 각종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섬나라 책방 헌책을 건축물처럼 쌓아놓은 이벤트홀에는 국내 30여 출판사의 다양한 어린이책을 전시한다. '추억의 헌책방'과 4개의 서적이 연합한 '통합책방'에 마련된 다양한 부스에서는 여유롭게 책을 보고 구매할 수 있다.

### 전시

70일간 진행되는 책잔치 기간 중에는 지속적인 릴레이 전시가 펼쳐진다.

〈한국동요 100년전〉(4.21-6.30) 100년간의 한국동요 역사와 애창 동요 이야기, 동요를 빛낸 사람들 전시. '나미나라 피꼬리 선발대회' '동요 노래방' 등 어린이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닥종이 9닥다리 인형전〉(4.22-6.30) 닥종이 인형가 9인

이 모여 만든 8도 민속놀이 인형전 〈세귀르 그림전〉(5.26-6.30) '세귀르 백작부인'으로 통하는 프랑스의 국민작가 소피 로스토프친의 그림동화 원화를 전시한다. 14개국에서 3만 5천부 이상이 판매된 '당나귀 까다송'을 만날 수 있다.

### 체험행사

〈술빚기 가족민속 체험〉(5.7):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행사. 민속주 제조 방법 그대로 술을 빚고, 각데일 만들기, 술문화 예절 익히기 등 재미있는 이색체험.

이밖에도 〈황금채취 체험장〉 〈동춘서커스〉 〈일본전통 피리 공연〉 〈피노키오 만들기 목공체험〉 〈마임 물방울 쇼〉 등은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 놀이, 자연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다. (문의 : 031-582-5118)

##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5월 5일~5월 14일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는 파주출판단지 내 150개의 입주사 가운데 어린이 도서 전문 출판사 45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다양한 이벤트와 강연, 전시행사는 일반 시민들 뿐 아니라 어린이책을 공부하는 출판업 종사자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출판도시에서 놀며 배워요

올해에는 "출판도시에서 놀며 배워요"라는 주제로 48만여 평에 이르는 단지 곳곳에서 출판사별 행사가 펼쳐진다. 아

시아출판문화 정보센터에서 진행되는 '테마기획전'은 '새로운 환경과 영상으로 만나는 어린이 책의 세계'를 테마로 초청국가인 '프랑스'의 그림책 원화 전시와 심포지엄이 마련된다.

###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심포지움 '세계어린이도서관'〉과 리어린이책센터 소장인 '즈느비에브 빠트' 씨의 강연으로 '어린이 책의 예술화를 위한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작은 영화제〉 작년 이어 올해는 '문학과 만나는 작은 영화제'라는 테마 아래 국내 미개봉작 6편을 포함, 어린이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는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영화를 상영한다. '노인과 바다' '살롯의 거미줄' '어린 왕자' '알프스 소녀 하이디' 등 유명 어린이 문학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로 구성됐다. 1시간 30분을 넘지 않는 이들 작품은 어린이들에게는 고전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관람 후 원작도서를 읽어보며 연계학습을 기대할 수 있다.

〈출판 과정 견학〉 출판인쇄 입주사인 천일문화사와 상지 P&B 두 곳에서 시행되는 이 행사는 인쇄, 제본 등 책 만

드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행사기간 동안 매일 11시, 3시 두차례 이뤄진다.(사전예약)

〈심학산 숲체험〉 파주출판단지내 위치한 심학산을 등반하며 숲 해설가에게 심학산 자연생태 이야기를 듣는다.(1일 2회, 사전예약)

〈판소리를 통한 고전 즐기기〉 심청가, 흥보가, 춘향가 등 판소리 다섯 마당의 주요 대목을 공연한다. 아이들이 고전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이희아 피아노 독주회〉 〈세밀화 그리기〉 〈영어동요 대회〉 〈웅기 시연회〉 등은 눈과 귀로 즐기는 문화체험행사.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는 올해로 4회 째를 맞는다. 150여 입주사 가운데 어린이 도서 전문 출판사 45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행사기간 동안 파주 출판단지는 '차없는 거리'로 바뀐다. 생태도시를 표방해 환경 조성을 진행해 온 파주출판문화 단지는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갈대밭과 각종 곤충류가 서식하고 있어 어린이 자연학습의 장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건축작품으로도 손색없는 출판사의 사옥을 최대한 개방, 활용하여 열리는 이번 책잔치에는 책을 멀리하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체험'하고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객이 몰리는 주말을 피해 홈페이지에서 출판사별 일정을 확인한 후 참여하면 보다 알찬 책 잔치를 즐길 수 있다.(문의 : 031-955-0063) ☎

가평·파주=취재\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